

마임캠프·문화난장...4계절 특색으로 하나되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일 공식 개막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5·18민주광장서
개막일 '월간 서커스' 등 25개팀 참여
임정 수립 100돌 기념 '드림뮤지컬' 공연도

선택과 집중, 시즌제 도입, 장르·형식 초월한 거리예술 축제...
올해로 4년차로 접어들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56억 아시아의 얼굴에 활짝 핀 문화 웃음꽃을 선사하는 의미에서 올해 주제는 '웃음꽃 핀 아시아'다.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올해의 콘셉트는 '56억 아시아 문화프로젝트! 광주프린지페스티벌'로 아시아 지역 작가들이 광주를 찾아 예술인들과 함께 하자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4계절의 특색에 맞춰 주제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문화소생(봄)', '아시아 문화의 물결'(여름), '아시아 예술본색(가을)'으로 나눠, 시즌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문화소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프린지페스티벌 취지에 맞게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문화적 상상력과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여름에는 '아시아 문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마임 캠프를 개최한다. 또한 가을에는 문화난장 등을 열어 주제에 맞게 '아시아 예술본색'을 수놓을 예정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이 없는 것이다. 축제 현장에는 흔한 무대 단상도 없다. 예술가와 관객들이 곱적, 표정 등으로 하나가 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 문화관광의 불거리로 손색이 없다.



애니메이션 크루의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공식 개막일인 오는 20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 선언 이후 일명 '우주에서 온 축하사절단'의 퍼포먼스와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몹이 시작된다. 5개의 스테이지에서 총 25개 팀의 공연이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 당일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드림뮤지컬' 팀 공연이다. '드림뮤지컬' 팀은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을 부른다.

정형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감독은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광장문화는 물론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개막식 참여하는 주요 팀은 다음과 같다. '서커스로 그려낸 '나'의 이야기'(월간서커스·한국)는 국내 최초 Cube juggling이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빌런 아트와 일상의 거리에서 만나는 서커스 텐트다. 'The Painting : 춤추는 미술관'(애니메이션

크루·한국)은 살아 움직이는 미술작품의 상상을 실현시킨 공연으로, 전시와 공연이 합쳐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거리 공연의 장을 선사한다. 한국인 최초로 '아메리카 갓 탤런트' 본선에 올라 톱7까지 진출했다.

주제를 떠올리는 작품도 있다. '청춘예찬'(Gem dance company·한국)은 이 시대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체적 삶이 아닌 주위의 환경에 안주하는 청춘들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삶의 진정성을 찾는다. 대만 팀 'Greenman Show'(Greenman)는 녹색의상과 강렬한 브레이크 댄스 동작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퍼포먼스다. 또한 '낙화'(프로젝트 루미너리·한국)는 어둠 속에서 피어올라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송이 애잔한 불꽃을 표현한다.

문의 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062-223-0410.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wangjufringe,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6GJFF.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 아리아·가곡 등 다양한 장르 선보여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
2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아리아 '천애하는 어머니'와 임금수의 '그대 창밖에서', 말러의 가곡 '아름다움을 사랑하라' '추억' '이별'로 정취를 자아낸다.

광주의 중견 소프라노 김선희(사진) 씨가 오는 23일 서른세 번째 독창회를 연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김씨는 유려한 선율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오페라 아리아, 한국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의 차별점은 피아노 반주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첼로 협연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아니스트 박은성 전남대 교수와 아리스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광주시향 차석 첼리스트 이후성 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루하지 않은 독창회를 만들고 싶어요. 공연 1부는 바이올린 반주와 함께하는 영어 연가곡 등으로 채우고 김주원 작곡가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경우 첼로 연주를 위한 편곡도 거쳤어요. 반주자의 음악적 성향을 반영해 함께 즐기는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하려 합니다."

연주회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포도나무 아래'로 문을 연다. 이어 에이미 M.C.비치의 '환희' '단지 이것을 위하여' '신뢰의 찬가' '아, 사랑'을 바이올린 반주와 함께 무대에 올린다. 이어 무어 오페라 '베이비 도우의 발라드'의

로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미카엘라의 아리아인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를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김씨는 오는 6월 28-29일 열리는 광주시립오페라단 '카르멘' 공연에서 미카엘라 역을 맡았다.

호남예술계 최고상을 2회 수상한 김씨는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을 마쳤으며 이탈리아 로디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입상했다.

'라보엠' '리콜레토' '나비부인' 등 국내에서 제작된 많은 오페라에 출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세계 고아의 날 포럼'에서 독창 무대를 갖기도 했다. '김선희 한국가곡', '힐링가요' CD를 출판하기도 했으며 한세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책거리·음악·죽음과 삶 주제 시민 만남

'ACC 인문강좌'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



지휘자 서희태

주제로 강연을 한다.

6월 인문강좌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올린 소'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희태 마에스트로가 '음악, 아

'ACC 인문강좌'가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ACC 인문강좌의 첫 시작은 기상천외한 책 그림으로 만나는 조선시대 선비들이다. 우리의 민화를 알리는 데 힘쓰는 정병모 교수(경주대)가 오는 24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적, 책거리'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정 교수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책거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을 유난히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회화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기상천외하고 현대적인 책 그림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적을 들여다본다.

5월에는 국민 캐리커 '보로로' 제작자,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가 '성공적인 실패전략과 실패하는 성공전략'이라는

는 만큼 들린다'를 주제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7월은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유성호 교수(서울대학교)의 강연이 펼쳐진다. 최근 법의학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한 '나는 매일 시체를 보러간다'라는 저서를 토대로 유 교수는 '죽음으로 삶을 배우다 (Mortui Vivos Docent)'라는 주제로 강의의 진행한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 아트 작가 매카시와 함께하는 워크숍 광주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19일~5월13일까지

디자인 미디어 아트 전문가인 미국의 로렌 매카시(사진) 작가가 진행하는 디지털과 뉴미디어 아트 워크숍이 광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포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관심을 끈다



매카시는 온라인상에서 코드를 통해 창의적 표현을 학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일종인 p5.js를 개발한 전문가다. 그의 작품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일본 미디어 예술제 등에 출품됐으며 아이빔, 오토데스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QUT TRANS-MIT3에서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문화재단은 예술과 기술, 사회적 포용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배경의 자원자들을 선정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로렌 매카시는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0일 심사위원단 평가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진행되는 오픈하우스 행사로 마무리한다. 아티스트 토크는 19일 오후 5시~7시, 오픈하우스는 5월 10일 오후 5시~8시, 11일 오후 12시~5시 열린다. 문의 062-670-74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회 광주건축대전 개최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기회가 주관하는 제2회 광주건축대전이 개최된다.

광주건축대전은 전국범위의 공모전으로 전공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전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 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반공모전은 '공유공리(共有公利)'라는 주제를 제시해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현재의 건축적 상황에서, '공유된 가치와 공동의 이익'이라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다.

아이디어 공모전(1차 5월 23일~5월 29일, 2차 6월 27일~7월 3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을 다양하고, 새롭고, 자유롭게 디자인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대상 상금은 일반 공모전 700만원, 아이디어공모전 100만원이다.

부대행사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기획전시전, 심포지엄(김찬중 건축가) 등이 9월 25일부터 4일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행렬
남악제례
현공다례
길거리 씨름대회
음·면 율놀이대회
문화예술 공연
(난타, 실버합창, 호남여성농악)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군민 한마당
군민체육대회(단체체술놀이 등 7종목)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노래자랑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제75회 지리산남악제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한지공예 전시
기념품 만들기 체험
국립공원홍보관
한글 시연 경기

경연·참여 마당
남악서에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2019. 4. 18. 목 ▶ 20. 토
남악사·화엄사 시설지구·구례군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문화재단
문의 | 061) 780-2727